

## “자연”스러운 성장: 『파도』와 성장소설

손 일 수

### I. 들어가며

본 논문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소설 『파도』(*The Waves*)를 모더니스트 성장소설로 읽고자 한다. 20세기 전반에 울프를 포함하여 다양한 작가들은 문학적 실험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사회를 재현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을 고민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울프가 19세기 성장소설의 전통을 부정하기보다 비판적으로 계승함으로써 성장소설의 전통에 내재된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요구를 재고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나아가 작품의 막간 부분을 포함하여 풍부하게 묘사되는 자연이 인간의 성장의 의미에 개입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이 소설에서 자연은 전통적 성장소설을 통해 구현되는 이데올로기, 즉 근대적 개인과 민족공동체의 종합이라는 담론을 비판적으로 다시 쓰는 데 기여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자연이 개입, 동시에 교란하는 성장 서사야말로, 모더니즘 소설로서 이 작품이 이룩한 성취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빌둥스roman’(Bildungsroman)을 ‘성장소설’로 번역하여 사용하지만, 그것이 적절한 번역인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성장이 묘사된 모든 소설이 빌둥스roman은 아니며,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처음 사용된 그 표현은 당시 독일의 역

사적 요구와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본 논문은 여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전통적 빌둥스로만의 문화적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내재하는 의미에서 ‘성장소설’이라는 번역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프리츠 마티니(Fritz Martini)에 따르면, 18세기 말 처음 사용된 ‘빌둥스로만’이라는 표현은 사회적 경험을 통한 개인의 내면 성숙과 발전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를 교육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소설을 지칭했다. 계몽 전통의 영향 하에서, 성장소설은 “이성과 감정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이상”을 강조했고,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목적으로 삼았다(7).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특히 성장소설의 원형으로 흔히 간주되는 괴테(Goethe)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주목한다. 바흐친은 괴테의 소설이 비단 이성과 자율성과 같은 계몽적 전통의 추상적 가치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시간” 속에서 “인과율”에 기반한 경험의 연속을 통해 “인간의 형성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아내는 서사라고 주장한다(23).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분석하고 있듯이, 이 ‘역사적 시간’은 신문이나 문학과 같이 공통의 언어에 기반한 매체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나아가 근대 민족국가의 핵심적 통합 원리로서 작동한다(22-36). 민족국가는 공통의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교육시킴으로써 근대적 개인을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고, 성장소설은 그러한 요구에 대한 문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성장소설은 민족공동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변증법적 종합을 이루는 이상을 표현한다.

성장소설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자본주의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정교하게 분석한 학자는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다. 성장소설의 중심인물은 주로 18세기 이래 부상하는 중산층 출신의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본주의에 기반한 역사의 역동성과 진보를 체현한다. 개인에게 “자본주의의 새롭고 전복적인 힘은 여태 알려지지 않은 이동을 부여”하며, 이 개인은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 『제인 에어』(*Jane Eyre*),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 등에서 보듯 기존 사회의 전통, 귀족 중심의 질서와 규범에 불만을 품거나 도전한다(4). 하지만, 기성사회는 그들이 상징하는 “본질적으로 무한한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제

1) 1819년 이 단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문헌학자 칼 모겐스텐(Karl Morgenstern)과 당시 독일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제프리 새먼스(Jeffrey Sammons)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한함으로써,” 자본의 혁명적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흡수,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것을 재현가능하며 나아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7). 성장소설에서는 근대적 개인이 결혼과 같이 개인의 사적 내면과 공적 생활을 연결하는 행위나 사건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기성 가치들을 자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개인의 주체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으면서 기성 사회와 타협, 내지 조화를 달성한다. 실제로 이러한 완전한 조화가 개별 소설에서 달성되는지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다. 어쨌든 본인을 포함한 여러 학자들은, 전통적 성장소설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질서와 규율에 기반한 민족문화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근대적 개인을 포섭, 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 혹은 자신감이 예술적으로 표현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근대적 개인과,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유기적이고 강력한 통합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고 간주되는 민족사회 사이의 조화라는 이 성장소설의 이상은 곧 근대 자체의 이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전반 전통적 성장서사의 실패나 변형은 그 자체로 근대성에 대한 문학적 고민, 즉 모더니즘 운동의 한 양상이다. 문화적 재현과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시작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에 대한 믿음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민족문화 역시 더 이상 공동체를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성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sup>2)</sup> 제드 에스티(Jed Esty)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변형된 성장소설을 분석하면서, 이 시기를 “진보가 더 이상 유기적 민족주의의 약속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호될 수 없는, 세계적으로 불균등한 발전의 시대”라고 칭한다(15). 민족 공동체를 통한 근대적 개인의 성공적 사회화를 형상화하고자 하는 전통적 성장소설이 쉽게 쓰일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울프가 『출항』(*The Voyage Out*)을 통해,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을 통해, 전통적 성장소설의 관점에 따르면 일종의 ‘실패’한 성장소설을 씀으로써 각각 모더니즘 소설가로서 입지를 구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19세기 민족문화가 세계화된 생산 양식에 기반한 메트로폴리스 문화를 총체적으로 재현할 수 없게 된 현실을 모더니즘의 문화적 토대로 해석했던 가장 선구적인 학자 중 한 명이다. 본 논문 역시 모더니즘 성장소설의 발전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접근을 확인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제임슨의 『모더니즘과 제국주의』(“*Modernism and Imperialism*”)를 참조하라.

소설 『파도』도 명백히 여러 인물들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소설을 19세기 전통적 성장소설을 다시 쓰거나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전통적 하위 소설 장르에 대한 반응이자 그것의 다시 쓰기로 보기에, 이 소설이 여섯 인물의 독백과 자연을 묘사하는 간주로 구성되는 등, 모더니스트로서 울프의 소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이고 새로운 형식을 선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 사례들을 보면, 평자들은 불확정성 이론 등 현대 과학 담론과 관련하여 소설의 인물이나 자연을 분석하거나(Froula, Ryan, Alt), 울프의 문학 형식에 대한 고민을 30년대 제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비판과 결부시키거나(Son, Marcus, Berman, McInter),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제국주의에 대한 소설의 복합적 입장을 분석(Garrity, Purifoy)한다. 많은 평자들은 소설의 새로운 예술적 형식과 다양한 현대 담론과의 친연성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민족문화, 제국주의, 젠더 등과 관련한 역사와 전통에 울프가 개입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소개한 대로 전통적 성장소설이 개인과 민족문화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파도』는 이를 테면 “베르그손이 주장하는 진정한 시간,” “공간 개념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지속, 즉 이질적이며 내적·의식적인 시간”을 묘사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염경순 113). 평자들은 소설 속 인물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성장과정을 묘사하는데 주목하고 그들의 내적 심상을 외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하면서도, 성장소설의 전통에 『파도』를 위치시킬 충분한 연속성을 발견하지 못한 듯 보인다.<sup>3)</sup> 분명히 『파도』는 전통적 성장소설과 매우 다르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러한 차이를 성장소설 전통과의 단절로 간주하기보다, 그 전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자 대화, 나아가 다시 쓰기로 보고자 한다. 성장소설의 문학적 전통에 개입하는 방식과 태도는 곧 민족공동체와 개인의 종합이라는 근대의 이상, 즉 성장소설이 표명하는 담론 자체에 대한 반응이며, 동시에 영국 근대사의 중심으로서 제국의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특히 울프의 여타 소설처럼, 이 소설에서는 인간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

3) 19세기 문학적 전통과 울프의 『파도』 사이의 연속성, 혹은 후자가 전자에 반응하는 방식에 주목한 사례가 없지는 않았다. 이를 테면, 제인 드 게이(Jane de Gay)는 여러 낭만주의 시를 울프가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다시 쓰면서, 낭만주의 문학이 노정하는 예술과 자연에 대한 비전 역시 재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징하거나 혹은 무심하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이 빈번히 묘사된다. 울프의 첫 장편 『출항』은 갑작스레 지나가는 폭풍우가 막 레이첼(Rachel)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랐던 인물들의 관심을 빼앗는 장면으로 끝난다. 울프의 마지막 소설 『막간』(Between the Acts)에서는, 연출가 라 트로브(La Trobe)가 야외극을 통해 영국 역사를 재현하려는 시도가 바람, 새, 소 등의 자연물의 개입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기도 한다. 『파도』에서 역시 자연 묘사는 그것의 모습과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막간에서는 물론, 인물들의 독백에서도 끊임없이 등장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성장소설이 근대의 이상적 진보를 재현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해석해온 성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문명의 필요에 의해 ‘인문화’시켜온 것으로서의 성장을 『파도』가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 II. 제국에서의 성장과 불안

『파도』에서 독백의 주인공들인 버나드(Bernard), 루이스(Louis), 네빌(Neville), 수잔(Susan), 지니(Jinny)는 다양한 차이를 지닌 인물들이지만, 모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 소외를 어떻게 극복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장한다. 이 고민은 본격적으로 외부 사회에 진입하기 전, 엘브던(Elvedon)의 정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유년기를 보내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루이스는 친구들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자신과 구분지어 “모두 영국인”이라 되뇌며 영국민족공동체로부터의 소외의식을 표출하고, 로다는 “세상은 완전하고, 나는 그것의 바깥에 있다”고 자조한다(19, 20). 루이스를 발견하고 그의 목에 키스하는 지니를 보게 된 수잔은 “나는 땅딸막하”고, “키가 작다”며 애정을 공유하는 친구들로부터 소외감과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다(15). 작품은 정규 교육을 받으며 공적 영역의 사회화 과정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분리와 소외를 인물들의 존재조건으로 제시한다. 인물들은 각자의 이유와 언어로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첨예하지만 독립적인 감정과 의식을 표현한다. 이와 같은 존재 조건은 이 소설을 성장소설로 읽을 수 있는 일차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장소설은 자율적 개인과 그것을 통제하려는 기성사회를 전제하며, 그 둘 사이의 갈등과 궁극적으로 어느 쪽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타협, 내지 조화를 서사화한다. 초반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누구도 공적 담론에

완전히 의식이 환원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독백은 모두 미래의 사회화와 교육 과정이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소외와 불안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조화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을 지 여부에 천착한다.

그들은 런던으로 이동하여 영국의 주류 교육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작품은 성장소설이 표현하고자 했던 성장의 방식이 그들에게 가능한 지에 대해 즉각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의 모범적 주체를 훈육,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잔은 “기도하지 않”으며, 학창 시절에 대해 “복수할 거라” 다짐한다(40). 수잔에게 그 교육은 아름다운 “6월의 나날들을” “종소리와, 수업과, 씻으라는 명령을 통해 환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40). 소설의 마지막 독백은 버나드가 홀로 책임지는데, 그는 그들의 학창시절을 비롯하여 성장 과정에서 겪은 여러 정서적 경험을 요약한다. 여러 복합적 기억 가운데, 버나드는 그들이 경험한 영국 사회의 교육이 독립적인 개인들을 유기적으로 사회화시키는 과정이라기보다, 사회의 지배이념을 기계적으로 반복, 주입하는 획일화의 기제로 회고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숨쉬고, 먹고, 잔다. 우리는 따로따로일 뿐만 아니라 구별이 안 되는 물질의 방울들 속에 존재한다”(246).

특히 루이스에게 런던은 그의 의식이 포괄할 수 없는 파편과 움직임으로 가득 찬 공간이다. 루이스의 의식 속에서, 대륙과 해양을 지배하는 제국의 문화적, 산업적, 영적 중심지로서 런던의 면모가 강조된다. 거친 바다의 파도처럼 런던은 “바스라지”고, “들어 올려졌다가 밀려오”며, “굴뚝과 탑들로 가득”하고, “흰 교회”가 있으며, 첩탐들 사이에 “뚝대”가 보이고, “아스팔트 길” 위로 사람들이 걷는 게 루이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진다(31). 루이스에게 이곳은 영국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는 인물들이 내면적 독립성을 상실한 채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는 공간인데,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억양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31). 제국 시대 민족공동체의 기능과 관련하여,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민족국가들이 규제 없이 자본의 논리를 추종하고 무한히 경쟁하기 시작하는 19세기 후반에 이르며, 민족공동체의 사회통합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한다고 이른다. 민족의 정치 공동체와 문화적 규범을 무화시키기 시작하는 제국 경쟁은 “피지배인들 뿐만 아니라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살아 있는 공동체들의 파멸”로 귀결된다(131). 울프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듯, 기계적 반복과 학습을 통한 제국 주체의 형성을 강조하는 영국의 민족교육은 개별적 차이를 유기적으로 사회에 통합하기보다, 등장인물들

을 더욱 영국 사회로부터 이반시킨다. 공동체의 규범과 개인의 내밀한 욕망 사이의 간극은 제국의 배경을 통해 특히 강조된다.

이러한 인물들을 영국의 지배문화를 매개로 사회화시키고 통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이 퍼시발(Percival)이다. 그는 제국에 봉사할 모범적인 영국 주체로 성장한다. 자신만의 서사를 통해 통합적 비전을 창조하려던 버나드는 “퍼시발 없이는 견고함이 없다”고 말하며, 퍼시발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루이스는 모든 소유들이 “하나의 강철같이 푸른, 원형의 소리로” 모아진다고 느낀다(122, 136). 소외를 극복할 어떠한 방식도 소유하지 못했던 로다 역시, 비로소 “이리저리 튀던 피라미 같던 우리가 그의 주위로 튀어 왔”고, “안도감이 살며시 우리 위에 내려앉았다”고 되된다(136). 제국의 사업에 기여할 총아로 인식되는 퍼시발은 분리되어 있던 인물들에게 “주위를 빙빙 둘러싸는 사슬”을 제공한다(137).

퍼시발은 작품에서 독백을 담당하는 인물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제국의 활동, 권위, 그리고 통합의 기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퍼시발의 성장모델은 그가 갑작스레 죽기 이전부터 불완전함을 드러낸다.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 규범 사이의 변증법적 종합을 구현하기에 영국 사회의 교육은 이미 심각할 정도로 개인의 독립적 영역을 배제해왔고, 퍼시발은 이런 교육의 극단적 결과물을 체현한다. 루이스는 퍼시발을 흠모하면서도, 동시에 퍼시발이 “황동 기념판의 라틴 문구들과 동종이”며, “그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으며, “이교적 우주에서 우리 모두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36). 성장소설의 주체가 되기에 퍼시발에게는 독자적 내면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퍼시발이 스스로의 내면을 표출하는 독백은 없으며, 그가 주변 인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은 그의 목덜미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특유의 조각난 “제스처”들이다(36).

제인 마커스(Jane Marcus)는 이 작품이 “영국 공립학교와 그것의 가치에 의해 형성된 세대나 그룹으로부터 문화적 권력의 기원을 연구하”고 있다고 평하며, 울프가 이튼의 “에토스에 기반한 속물적이고 영원히 사춘기스러운 남성 연대”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64). 마커스의 지적처럼, 퍼시발이 상징하는 형태의 성장은 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과 종합을 수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복합적이고 확장된 의식을 배양하지 못한다. 퍼시발에게 성장은 “영원히 사춘기스러운,” “제스처”의 기계적 반복이다. 특히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기성가치와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저항은 궁극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그때 서사는 완결되고, 소설은 비로소 ‘끝’날 수 있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최종적으로 『오만과 편견』의 엘리자베스처럼 ‘자발적인’ 방식으로 기성가치의 미덕을 인정하며 수용함으로써, 저항에 몰두하던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성숙’한 인물로 성장하여 성장서사를 완결시킨다. 제스처의 반복만으로 구성된 퍼시발의 공허한 성장서사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부재하다. 그는 “영원히 사춘기스럽다”. 의식이 없이 제국 이데올로기를 단순 재생산하는 퍼시발은 유기적 성숙과 성장(coming of age)의 서사를 이데올로기적 동일성의 반복으로 치환한다. 다시 말해서 퍼시발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라지’ 않는다. 반복만이 존재하는 그의 성장서사가 종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품에서 묘사하는 바로 그대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갑작스런 죽음뿐이다.

퍼시발에 비해, 양태는 저마다 다르지만 복합적이고 독립적인 내면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 여타 인물들은 퍼시발과 그가 대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그들은 퍼시발이 제공하는 성장의 모델에 매료되면서도, 그것의 한계, 그리고 그것이 필연적으로 개인성을 소멸시키며 차이를 배제할 수 있는 위험도 끊임없이 의식한다. 루이스는 퍼시발과 같은 모범적 학생들의 행진에 매혹되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나비들의 날개를 뜯어 비틀거리도록 내버려두”고, “어두운 복도에서 어린 소년들을 울린다”는 것을 안다(47). 그들의 행진을 보며 로다 역시 “부패를 예견”한다(140). 버나드 역시 퍼시발의 활약상을 상상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어설피고 성숙하지 못한 면모, “영원히 사춘기스러운” 요소를 강조한다. 퍼시발은 “벼룩에 물어뜯긴 당나귀를 타고,”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며,”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달구지를 5분 이내에 바로 세우”는 것이다(136).

그들은 인도로 떠나는 퍼시발이 문명을 전파하고 ‘야만인’들에게 질서를 회복시켜줄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퍼시발이 대변하는 범지구적 제국의 활동이 자신들의 소외를 극복하도록 돕고 공동체적 결속을 복구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네빌에 따르면, 우리들은 “여기 간혀 있다. 하지만 인도는 바깥에 놓여있다”(135).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19세기 소설에서 재현된 식민지가 제국 메트로폴리스를 위한 불가분의 물적, 정신적 토대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사이드에 따르면 제국은 “마치 당연시되지만 거의 명명되지 않는 데



저택의 하인들의 노동처럼, 심지어 미미한 수준으로 가시화될 지라도 성문화된 존재로서 가능하다”(63). 메트로폴리스의 삶의 방식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식민지의 면모를 강조했던 사이드와 달리, 네빌의 언급은 식민지에서의 제국 활동과, 메트로폴리스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소외의 정서 사이의 분명한 간극을 강조한다.<sup>4)</sup> 따라서 버나드가 퍼시발에 의해 “동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때도, 독자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힘들다(136). 작품은 퍼시발에 대한 인물들의 사고와 언어를 통해서, 퍼시발의 개인적 죽음과 관계없이, 그가 상징하는 것이 여타 인물들이 동일시할 만한 성장 서사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묻는다.

퍼시발의 분명한 한계가 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담론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실은 『파도』를 성장소설의 폐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로 읽고자 하는 본 논문의 취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제국의 활동을 통해 퍼시발이 대변하리라 기대되었던 것은 영국 젊은 세대의 개인을 영국민공동체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는 사회화와 성장의 이데올로기이며, 곧 근대 영국 역사가 지향한 목표다. 퍼시발이라는 한 인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성장소설이 표명하는 이 역사적 목적론은 즉각적으로 폐기되지 않는다. 『파도』는 제국의 활동이 결부된 영국의 역사를 퍼시발을 통해 비판하면서도, 공동체의 역사와 목적성 자체를 부정할 위험에 대해 신중하다. 각 인물들은 퍼시발의 죽음 여부와 관계없이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성장서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퍼시발이 상징하는 것을 끊임없이 담론의 재료로서 참조하고,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재생산한다. 지니는 삶이 제공하는 다양한

4) 범지구적 제국 활동이 영국 성장소설의 차별적 특징이면서 잠재적 모순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지적된바 있다. 파트리시아 올덴(Patricia Alden)은 독일의 성장소설과 영국의 성장소설을 비교하면서, 범지구적 제국 활동이 일찍 시작된 영국에서는 성장소설이 일찌감치 “개인의 도덕적, 영적, 심리적 성숙을 그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연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한다(2). 토비아스 보이스(Tobias Boes)는 역시 범지구적 제국의 성장과 함께 발달한 유럽의 성장소설이 언제나 그것이 표명하는 민족의 식과 더불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요소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요소는 “민족의식과, 그것이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민족국가를 통해 완결되길 추구”하는 서사적 형태를 저해한다고 주장한다(34). 그들의 지적은 성장소설의 통합적 민족문화에 대한 이상과, 『파도』에서 재현되는 것과 같은 범지구적 제국 활동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쾌락의 원천과 유동성 사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유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니는 동시에 “저건 나이든 남자야. 나는 그에게 아이가 되어야 해. 저건 높으신 숙녀분이야. 그녀 앞에서 나는 가장해야지. 내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나는 고결한 적개심을 품고 칼을 뽑는 느낌이야”라고 말하며, 그녀의 자유로운 쾌락의 원천에는 여전히 영국의 주류 문화가 의지해온 가부장적 전통, 권위에 대한 경쟁적 순종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04). 퍼시발에 대한 기대가 좌절된 채 현대 사회가 야기하는 소외와 배제의 논리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로다는 퍼시발에게 “나의 헌사”라며 제비꽃을 바친다(164). 수잔은 전통적 전원생활과 모성애로 충만한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현대 사회의 혼란을 극복, 혹은 회피하는 하나의 전형적인 태도를 대변한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이를 키우며 장차 그의 눈을 통해 “자신의 몸 너머 인도를 보”며, 그가 언젠가 “집에 돌아와 내 발밑에 트로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172).<sup>5)</sup>

여성 인물들에 비해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누리고 보다 쉽게 능동적으로 담론을 제조하는 위치에 있는 남성 인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퍼시발이 제공하는 담론적 재료를 사용한다. 자신만의 담론을 통해 인물들을 통합하려 노력하면서 동시에 퍼시발이 제공했던 견고함을 아쉬워하는 버나드 뿐만 아니라, 네빌과 루이스 역시 민족문화와 역사를 통해 자아의 완성을 꾀한다. 루이스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영제국의 권위와 활동에 동일시함으로써 어릴 적부터 침예하게 의식했던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자신이 “혼돈이 존재하는 세상의 먼 곳에 상업을 전파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어둠을 밀어낸다”고 말하며, 영국의 상선으로 이루어진 선으로 “지구가 묶였다”고 덧붙인다(168, 200). 네빌은 서양의 고전들을 읽으며 시인으로서 초월적이고 예술적인 비전을 통해 혼돈의 현실에서 자아를 정립하려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역사적 시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럽의 운명은 막대하게 중요하”며, 자신은 “조지 왕의 신하가 되었다”고 고백한다(228).

『과도』를 모더니즘 소설로 분류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더니즘 ‘성장’소설로

- 5) 제인 개리티(Jane Garrity)는 1930년대 제국의 위상이 불안정해지면서 영국의 모성이 “신성한 민족적 의무, 인종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었음을 지적한다(249). 필자 역시 “울프가 모성과 제국주의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다”는 개리티의 주장에 동의한다(249). 하지만 모성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와 주장을 달리 하는지 논문의 후반부에 논의하기로 한다(249).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파도』가 발전론적 역사관을 끝내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에스티 역시 모더니즘 성장소설들이 “선형, 또는 목적론적 시간 바깥의 대안적 역사 모델”을 탐색하면서도, 그 소설들은 여전히 “가공할 만큼 실존적으로 주어진 현실로서의 전기적 소설에 대안적이고 반진보적인 모델을 이어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발전론적 역사주의에 저항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되풀이한다”고 본다(201). 『파도』에서 역시 퍼시발이 대변하는 성장의 모범은 영국을 중심으로 문명을 전파하고 역사를 진보시키는 발전적 역사관을 개인의 성장서사를 통해 강화하고 재생산한다. 작품은 이러한 역사 모델의 한계와 위험을 퍼시발을 통해 비판하면서도, 그 모델이 지향했던 성장과 사회화, 진보, 역사 등의 이상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 소설은 역사적 목적성이 상실된 서사, 차이의 반복과 다양성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장서사들을 나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모더니스트, “근대주의” 소설은 차이와 다양성만이 반복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를 지향하지 않는다. 대신 그 발전적 역사 모델이 여전히 행사하는 영향 하에서, 새롭지만 완전히 새로울 수 없는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 인물들의 혼란과, 사투, 그리고 좌절에 주목하는 셈이다.<sup>6)</sup>

### III. 자연을 포함하는 성장담론

울프의 『파도』를 여타 모더니즘 성장소설로부터 결정적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은 비단 대안적 성장서사가 완전히 새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태도에 자연에 대한 의식을 결부시킨다는 점이다. 이 작품에서 사회적 가치를 상징하기 위해 추상화된 성장, 다시 말해서 담론화된 것으로서의 성장은, 자연을 통한 또는 자연의 일부로서의 성장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6) 크리스티 퓨리포이(Christie Purifoy)는 퍼시발의 상실에 대한 인물들의 끊임없는 기억과 환기를 멜랑콜리의 개념을 이용해 분석한다. 성장서사에 집중하는 본 논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의 논문은 퍼시발이 죽음 이후에도 행사하는 영향, 나아가 그가 재현하는, 망각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제국의 과거에 주목한다. 퓨리포이에 따르면 집단적 멜랑콜리는 “민족 공동체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에 존재하는 결혼에 대한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민족 공동체가 과거를 쉽게 망각함으로써 발전하지 않고 자신의 성격에 대한 보다 철저한 이해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39).

자연은 역사의 반대향, 혹은 문명에 의해 주변화된 무엇으로서 존재하는 실체라기보다, 구체적인 문화적 요구를 수행한다. 우선 인물들의 어린 시절, 자연은 일견 어머니 대지, 현대 사회의 태동 이전에 존재했던 평화와 안정 등을 인물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소외를 자연과 대지로 돌아감으로써 극복하려는 수잔은 그곳에서 비로소 “나는 나무야. 새들의 무리, 펄쩍 뛰어오르는 어린 토끼는 내 것이야”라고 말하고 “나는 아이들을 가질거야. . . .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거야”라고 다짐한다(97, 98). 하지만 동시에 퍼시발과 관련한 위의 분석이 보여주듯, 전원생활로 돌아간 수잔은 그녀의 모성을 통해 제국주의에 연루되어 있다. 공적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예텐 동산을 연상시키는 엘버턴 정원의 수풀 속에서, 루이스 역시 “나의 뿌리는, 마치 화분의 섬유풀처럼, 세상 주위를 둘레둘레 얹고 있어”라고 상상하며 소외감을 극복하고 내적 안정을 모색한다(20). 이 이미지는 그가 런던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흠모할 때 그대로 반복된다. 권위와 동일시하는 자신을 두고, “대지의 감각이 나를 덮”으며, “내 뿌리는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 중심의 어떤 견고함을 감싼다”고 말한다(37). 두 예에서 보듯, 일차적으로 자연은 안정과 견고함의 이미지를 통해 권위와 질서를 보수하는 역할에 동원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작품에서 자연이 특정 기능을 시종일관 수행하거나, 일정한 문화적 요구에 일방적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금세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과 간주가 보여주듯, 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묘사되는 자연물 중 하나는 파도다. 위에서 분석한 식물의 뿌리가 상징하는 견고함 대신, 파도는 유동성과 혼합을 주로 상징한다. 어떤 확고한 개인적,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부유하는 로다는 자신이 “긴 빛, 이 긴 파도, 끝없는 길 가운데 펼쳐져 있”다고 느끼고, 사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접촉과 만남을 향유하는 지니는 “나는 뿌리내리지 않아. 나는 흘러다녀”라고 말한다(28, 75). 모든 이와 만나고 또 모든 이가 됨으로써 흩어진 개인들을 연결하려는 버나드는 자신을 “바위들의 맨 가장자리까지 야양게 휩쓸고 채우는 거품”이라고 일컫는다(107).

동시에 앞서 보았듯이 파도를 향해 로다는 퍼시발을 위한 꽃을 헌정하며, 지니는 파도와 같은 자신의 유동성을 가부장적 권위를 보다 능수능란하게 향유하기 위해 이용한다. 퍼시발의 죽음 소식을 들은 후, 버나드는 “지하철 문을 거품처럼 흘러나오는 저 무의미하고 제대로 완성되지도 못한 얼굴들, 무명의 슬한 인도인

들,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간들, 농락당한 여성들, 매 맞는 개들, 울고 있는 아이들, 그 모두가 상실을 겪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243). 런던의 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을 정처 없이 흐르는 “거품”에 비유하면서, 버나드는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타인들의 모습과 행동을 해석한다. 이처럼 그의 독백 내내 도심 속 사람들 사이를 파도처럼 유영하면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해석하고 통합하기를 기획하는 버나드 역시, 피시발이 상징하는 민족 통합의 방식처럼 독단적 판단과 욕망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sup>7)</sup> 막간에서 묘사되는 파도는 심지어 동물, 혹은 인류의 폭력적 면모를 강조하기도 한다. 새는 “무방비 상태인 벌레의 부드러우면서 기괴한 몸을 쪼”고, 파도는 “터번을 쓴 전사같이, 독이 묻은 투창을 들고 높이 팔을 치켜들며 다가오는 터번을 쓴 사람들 같이” 해변을 덮친다(74, 75). 다양하게 묘사되는 자연과, 자연의 이미지가 동원되어 설명되는 인물들의 말과 생각이 시사하듯, 자연은 역사적, 정치적 담론에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자연은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동원되거나, 혹은 재현하기 위한 상징적, 또는 감각적 이미지를 제공한다.

『파도』를 분석한 여러 평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연에 주목해왔다. 제시카 버만(Jessica Berman)은 작품이 파시즘을 비판하며 제시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에 주목하면서, “엄격하고 갈수록 남성화되는 영국 민족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바다를 제시한다”고 지적한다(144). 개리티 역시 이 작품에서 울프는 피시발이 대변하는, “파시즘과 상징적 질서와 관련된 군사주의적 민족주의”에 대비되는 “증후적인 것, 어머니/대지의 복원, 원시적 의식에 연결된 보다 진정한, 원형적 영국성”을 묘사한다고 평한다(243). 필자는 이와 같은 비평에 부분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평자들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자연의 복합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려고 시도해 왔다. 하지만 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 자연은 정치적, 사회적 담론과 늘 연계되어 존재하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나 전략에 일방적으로 동원되지 않는다. 파시즘이든 반파시즘이든, 평화든 폭력이든, 남성성이든 여성성이든, 특정 담론을 상징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 자연을 분석한다면, 그에

7) 버나드가 표방하는 통합의 비전에 내재한 독단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미 존재한다. 이를 테면, 손영주(Youngjoo Son)는 “버나드에게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에 질서를 부과하는 행위이다. 그의 이야기에는 사적 감정이나 타인들을 위한 연민을 위한 여지가 없다”고 평한다(91).

반하는 자연 묘사 역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자연의 존재를 보다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연은 인물들의 성장서사마다 빈번히 개입하면서 그것의 일부가 되는 동시에, 소설 전체에 걸쳐 그들의 성장에 관한 독백의 집합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매번 다른 모습으로, 교란한다. 자연은 특정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배타적으로 전유되지 않는 가운데 그 어느 정치적, 개인적 담론에 의해서도 완전히 인문화되고 독점될 수 없는 무엇이다. 루이스는 학교에서 확고한 권위에 매혹되어 “모든 전통과, 보호와, 제한에 축복을” 기원하지만, 같은 순간 “음침하게 때리는 파도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사슬에 묶인 괴물이 해변을 쿵쿵 걷는다”(58). 루이스는 영제국의 권위와 동일시함으로써 개별자로서 그의 존재를 민족 문화의 일부로 종합하고자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이 “음침”한 “파도 소리”의 간섭 때문에 결코 통일된 의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때 자연은 그의 성장서사를 완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담론의 완결을 끊임없이 회방하는 무엇을 재현하며, 담론에 내재된 비완결적, 불확정적 특성을 감각화한다. 그의 이성으로 포괄되지 않는 자연의 움직임은 곧 그의 마지막 독백에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선으로” 환원할 수 없는 “이 눈부신, 이 춤추는 환영들”과 연결된다(219). 선을 긋고, 공간을 구획하고, 나아가 정체성과 공동체의 경계를 세우려는 근면하고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절대로 그 연속성과 영원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자조한다(203).

퍼시발이 대변하는 영제국의 ‘모범’적 성장담론, 특히 버나드가 흠모하는 그의 견고함은 자연에 부과하는 질서, 혹은 구조로 종종 형상화된다. 다시 말해서 퍼시발의 성장담론은 곧 예측 불가능한 자연을 통제하고, 문명의 일부로써 지배하려는 힘으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퍼시발을 환송하던 버나드는 “서로의 뒤통치를 물어뜯는 자갈같이 으르렁거리던 우리가, 이제 캡틴과 함께 한 자리에서 냉철하고 자신감 가득 찬 병사들 같은 분위기를 취한다”(123)고 말한다. 수잔 역시 “어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발생”해서, “원 하나가 물에 내려졌”고 “사슬이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유롭게 흐를 수 없다”고 말한다(142). 담론이 강철 같은 원이라면, 자연은 줄곧 완결과 고정에 저항하며 흐르는 무엇으로서, 통일과 완결의 순간을 교란하는 힘이다. 강철 같은 원에 대한 수잔의 말이 끝나자마자 루이스는 곧바로 그 비전이 “오직 한 순간일 뿐”이라고 수잔을 반박하며, “지금 원은 부서지”고, 다시 “조류가 흐른다”는 걸 환기시킨다(142). 자

연은 현대 도시 사회에 대한 반대향으로서 전원생활, 어머니 대지로 물신화되거나, 특정 현상이나 사물을 상징하지 않는다. 자연은 개인의 성장서사와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담론이 미처 설명하지 못하는 무엇, 또 담론에 의해 설명되기를 거부하는 움직임, 소리, 순간들을 포함한다. 루이스가 로다에게 들으라고 요청하는 소리는 “냄새를 좇아 달리는 사냥개들”의 소리며, 그 개들은 “자신들의 문장을 끝내려고 걱정하지 않으면서 짖는다”(143). 가장 극심한 소외의 경험을 공유하며 연인관계를 이루었던 루이스와 로다처럼, 그 사냥개들은 “연인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작은 언어를 말한다”(143).

성장소설의 성장이 근대적 개인이 민족문화를 내면화하여 사회화를 완수하고 통일된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근대성에 대한 ‘담론’의 일부였다면, 『파도』는 이 담론에 자연 고유의 불확정성, 비결정성을 첨가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Adorno and Horkheimer)는 근대성이 자연을 주변화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계몽의 전통이 “수학적 정리”를 이용하여 자연을 계산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것으로 대상화하며 정복해왔다고 주장한다(18). 그들에 따르면 자연의 대상화와 정복은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고 개인의 특이성을 말살할 위험을 내포한다. 그들은 계몽이 도구적 이성으로서의 성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외의 상황에서 들려오는 자연”으로서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31). 『파도』는 성장의 담론에 소외되어 왔던 이 자연을 되돌려줌으로써, 인간의 성장을 비로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복구시킨다.

소설 『파도』는, 하지만, 역사와 문명의 억압적 측면을 비판하고 쉽게 자연의 편을 택함으로써, 문명/자연의 이분법을 재생산할 위험을 경계한다. 소설은 자연 자체의 불확정성, 우연성, 예측불가능성을 마냥 긍정하지 않는다. 인물들이 각자의 성장서사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시발의 기억이 시사하듯, 작품은 자연을 포용하면서도 개인을 사회에 통합시킬 원리나 역사의 목적을 폐기하지 않는다. 때문에 담론의 완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연은 그 자체로는 폭력적인 것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담론 생산의 능력이 가장 심각하게 결여된 로다는 파도에 완전히 자아를 의탁한 채 “동굴 속으로 던져지고, 끝없는 복도에 부딪히는 종이처럼 팔락거린다”(130). 무정형의, 불가지한 것으로서 자연은 모든 담론적 경계를 교란하며 궁극적으로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힘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파도에 실려 부유하는 로다에게, 루이스는 “무한한 공간의 심연을 지나가는 세계”를 들으라고 말한다(225). 그 곳에서 “역사의 밝혀진 줄기는 지나갔”고, “우리들의 왕과 왕비들, 우리들은 떠나버렸”으며, “우리의 문명, 나일강, 그리고 모든 삶” 역시 같은 위기에 직면한다(225).

역사가 자연의 근본적 혼돈과 폭력성에 의해 무화되는 위협에 대한 경계의 의미에서, 작품은 역설적으로 영제국의 ‘모범’적이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성장담론을 체현하는 퍼시발을 자연에 가장 밀착한 존재로 묘사하기도 한다. 문명/자연의 이분법을 답습하지 않는 이 소설의 풍경 속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 의해 완전히 배제되는 양 극단은 필연적으로 파괴라는 결말을 통해 만난다. 네빌은 퍼시발을 두고, “그가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 그와 태양 사이에, 그와 비 사이에, 그와 달 사이에 실 한 오리도, 종이 한 장도 놓여 있지 않다”고 말한다(48). “영원히 사춘기스러운” 그의 기계적 성장은 어떤 의미 있는 사회적 통합의 비전과 역사를 고민할 내면이 없이, 제국의 폭력성을 단순하고 즉물적인 방식으로 재생산한다. 퍼시발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면모는 역사 자체를 부정할 폭력성을 담지 한다는 면에서, 역설적으로 자연의 잠재적 파괴력과 닮아 있다.

『작가일기』(*A Writer's Diary*)에서 올프는 자연 본연의 불확정성과, 개인의 성장과 역사의 방향을 노정할 인문적 기획을 통합시키는 것이 이 작품의 의도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올프는 그의 작품이 “년센스, 사실, 추악함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예리하게 모가 날 것”이지만, 동시에 “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한다(136, 139). 올프는 이 작품이 “두 가지 상이한 줄기를 지날” 것인데, 그것은 “날아가는 나방과 중심에 곧추선 꽃”이다(140). 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노력, 노력이라는 주제, 파도가 아니고, 개성, 도전이 지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올프는 곧 “그 효과에 대해 예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 비율이 파도의 개입을 필요로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159). 올프는 문학적 틀에 의해 완전히 해석될 수 없는 자연을 적극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연 역시 자신의 더 큰 예술적, 인문적 기획의 일부로써 포용하고자 노력한다. 루이스 역시 로다에게 역사가 부정되는 혼돈의 세계를 언급한 직후, “하지만 지금 들어봐. 세계가 우리를 돌아오라고 불렀어”라고 덧붙이며, 삶 속으로, 역사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한다(225).

올프가 통합하고자 한 인문주의적 형식과 자연의 비결정성 사이의 긴장을 담



아내는 가장 대표적인 자연의 이미지는 주기적으로 오가지만 동시에 매번 모양을 달리하는 파도다. 작품의 형식과 관련하여, 울프는 『파도』를 쓰는 과정에서 “챗터를 지양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WD, 160). 실제로 이 작품은 단계적인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챗터를 배치하는 대신, 주관이 최대한 배제된 자연묘사로 채워진 간주들을 인물들의 독백으로 구성된 성장서사 사이에 주기적으로 ‘출몰’하게 함으로써, 그 성장서사들을 분절한다. 간주들이 출몰하는 방식은 곧 간주 부분이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파도의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여러 간주들은 성장서사가 연대기적 서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장 과정의 몇몇 특정 시점에서 행해진 인물들의 감각적 독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파도』라는 전체 소설은 인문적 담론으로서의 성장서사와 자연을 교차시킴으로써, 성장소설이 상징하는 목적론적 역사와 비결정성 사이의 긴장을 구조적으로 포괄한다.

버나드의 마지막 독백은 성장을 위한 노력과 그것의 완성을 방해하는 비결정성 사이, 혹은 역사와 자연 사이의 상보적이면서 대립적인 역설적 관계에 집중한다. 버나드는 먼 바다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지느러미의 이미지를 두고, 이것을 언어화하여 그가 추구하는 통합적 서사의 일부로 만들려는 충동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담론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동시에 서술한다. “이 벌거벗은 시각적 인상은 어느 이성의 즐기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때가 되면 꺼내고 달래 언어로 만들어낼 진술들을 간략히” 전달할 뿐이다(189). 타인들을 연결할 공동체의 서사를 자의적으로 모색하던 버나드는, 점차 그의 서사가 필연적으로 감수해야 할 불완전성, 그의 의도와 인식의 한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삶의 영역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엇”에 의해, 그의 “작은 관찰 도구는 해체된다”(243). 그의 서사에 포함될 언어는 그가 자의적으로 고안한 것만이 아니라, 감각적 자연에 의해 재현되는 삶의 우발적이고 자발적인 순간들이다.

이제 버나드는 “편지지 반쪽 위에 그리는 말끔한 삶의 도안들을 불신하”고, “이따금씩 틀림없이 다가오는 수치와 성공의 순간들과 더욱 조화를 이루는 어떤 기획을 추구한다”(238). 버나드는 “다시 여기에 음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음악은 동시에 “저 거친 사냥 노래, 퍼시발의 음악이 아니”다(250). 대신 그것은 언어와 담론에 의해 완전히 인문화 될 수 없는 육체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을 포괄하는데, “고통스러우며, 쉼 목소리가 나고, 내장에서 비롯되며, 또한 숫구쳐

오르는 종달새 소리같이 울려 퍼지는 노래”다(250). 그의 이야기를 위한 문구들은 이제 종달새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른다.<sup>8)</sup> 동시에 그는 “전기적(biographic) 스타일에 잘못을 발견할 수는 없다”고도 단언한다(259). 왜냐하면 무정형의 자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인문적 노력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혼돈에 가로질러 놓인 로마의 길과 같고”,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찰들의 느리고 신중한 보폭으로 문명화된 사람들처럼 견도록” 만들기 때문이다(259). 버나드의 마지막 독백은 곧 성장서사에 대한 텍스트의 자의식을 드러낸다.

작품이 묘사하는 역사와 자연사이의 끝없는 긴장은 결국 여러 탈근대이론을 작품 해석에 활용하면서, 자연의 비결정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치우친 일군의 비평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다. 이를 테면 크리스티나 프롤라(Christina Froula)는 버나드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 존재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기억된 것과 망각된 것을 운반하는 존재의 줄기를 듣”고, 이 “보이지 않는 존재는 형이상학을 무한히 상호 관통하는 에너지를 지닌 자연의 이미지로 재구성한다”고 주장한다(209). 프롤라에 따르면 이 작품은 “신체, 정체성, 시간, 사건의 경계를 회피하는 주체성”을 탐색한다(209). 데릭 라이언(Derek Ryan) 역시 현대 양자물리학, 정동(affect)이론 등의 관점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가운데, 울프가 “인간과 비인간, 문명과 자연 사이의 위계적 구분에 관한 개념을 거부하는 내적 행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지적한다(180). 이와 같은 비평들은 모더니즘 소설로서 이 작품이 지니는 실험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자연이 전통적으로 정립된 주/객, 해석/관찰, 언어/실재 사이의 경계를 해체하는 양상에 집중한다.

분명 이 소설에서의 자연은 인간의 문화적 필요에 의해 해석되고 설명되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설 『파도』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순간들이 모든 문화적 의미, 나아가 역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서로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역사와 자연의 관계, 모순되기에 역설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이 관계의 긴장은 작품의 결말에서

---

8) 버나드가 타자, 나아가 비인격적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 나아가 자아를 갱신하는 모습을 강조한 연구로 김금주의 논문이 있다. 김금주는 니체의 ‘생성’이론을 통해 버나드를 분석하면서, 그의 보여주는 생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형식으로 코드화하기를 의도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며, 존재들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긍정하고 상호소통을 통한 부단한 변형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143).

극대화된다. 자연은 모든 성장의 필연적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것의 극단적 부정, 즉 죽음을 환기한다. 버나드는 파도에 휩쓸려 “잠동사니들, 막대기와 지푸라기들, 혐오스런 난파조각들, 표류화물들에 부딪히”다가도, 다시 뛰어올라 “싸우라”고 외친다(269). 버나드에게, 그리고 전체 텍스트의 의식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는 “우리가 가장 서두를 때 잠자고,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붉게 떠오르는 무감각한 우주에 우리가 일부가 되어”버린 이 극단적인 소외와 고립의 상황이다(280). 우리가 “얼마나 빨리 망각되는 지”에 대한 공포, 삶의 방향의 부재, 의미의 부재에 대한 불안이다(280). 여기서 파도는 그를 거꾸러뜨리지만, 그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다시 “나의 힘을 모으고 일어나서 적을 대적하도록” 만든다(293). “죽음이 나의 적”이라고 할 때, 전기적 형태, 즉 버나드의 성장서사는 곧 성장의 종말인 죽음에 대한 싸움이며, 나아가 역사의 소멸에 대한 저항이다(297). 이 소설은 자연을 포용하는 서사를 구상하지만, 동시에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인에게는 죽음, 역사에게는 종말 밖에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도 암시한다.

#### IV. 맺으며

『파도』는 성장소설의 전제들을 질문하는 동시에 그 전제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내면을 보유한 근대적 개인이 민족문화를 통해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통합적 의식을 달성하는 성장소설의 이상은, 곧 근대 발전적 역사주의의 이상이었다. 그 이상의 불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은 퍼시발의 한계를 통해 명백해졌지만, 역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근대주의자’로서 울프는 퍼시발이 상징하는 담론의 잔여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인물들은 각자의 성장을 통해 개인의 자기실현이 사회적 가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공동체를 모색한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대한 모색으로서 개인의 성장은 곧 역사의 진보에 대한 폐기될 수 없는 신념을 대변한다. 단, 울프는 임의의 새로운 성장서사를 완결된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제시하는 대신, 그 서사가 자연 위에 강제된 ‘강철 고리’처럼 배제와 억압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지 않기를 주문한다. 새롭게 쓰일 성장서사가 표방할 담론에 파도와 같은 자연 본래의 우발성, 비결정성, 불확정성 등을 적극 개입시킴으로써, 담론이 내포할 수 있는 폐쇄적인 독선을 예방한다.

앞서 소개한 성장소설의 전통에 비추어 판단한다면, 사회화가 완수되지 못하거나 적어도 연기되는 이 작품은 실패한 성장서사로 해석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도』에서 전통적 성장서사의 실패는 제국주의에 기반한 영국의 문화가 사회 통합적 기능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대한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다. 이 소설은 제국의 유지와 경영을 위한 모범적 영국 주체를 육성하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역사적 배경 하에서, 특정 문화적 요구에 의해 완결될 수 없는 성장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따라서 성장에 대한 고민은 전통적 성장소설이 주로 사용하는 결혼 등의 의례와 상관없이, 특정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 독자는 이 실험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역사성을 겸비한 소설로부터 아주 상식적이며 보편적인 결론도 추가로 도출해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인간의 고민은 평생 끝나지 않아야 한다. 완성되었다고 자부하는 성숙은 성숙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대)

## 인용문헌

- 김금주. 「울프의 『파도』에 나타난 자기 창조의 문제: 니체의 ‘생성’을 중심으로」. 『제임스조이스저널』, 18권 1호, 2012, pp. 125-48.
- 염경순. 「『파도』에 나타난 시간과 파도 이미지」. 『비교문학』, 54권, 2011, pp. 109-32.
- Adorno, Theodor W. and Max Horkheimer. *Dialectics of Enlightenment*. Edited by Gunzelin Schmid Noerr and translated by Edmund Jephcott, Stanford UP, 2002.
- Alden, Patricia. *Social Mobility in the English Bildungsroman: Gissing, Hardy, Bennett, and Lawrence*. UMI Research P, 1986.
- Alt, Christina. *Virginia Woolf and the Study of Nature*. Cambridge UP, 2010.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and extended ed., Verso, 1991.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Harcourt, 1973.
- Bakhtin, M. M.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Realism: Toward a Historical Typology of the Novel.”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edited by Caryl Emerson and Michael Holquist and translated by Vern W. McGee, 1st ed., U of Texas P, 1986.
- Berman, Jessica Schiff. *Modernist Fiction, Cosmopolitanism and the Politics of Community*. Cambridge UP, 2001.
- Boes, Tobias. *Formative Fictions: Nationalism, Cosmopolitanism, and the Bildungsroman*. Cornell UP, 2012.
- De Gay, Jane. *Virginia Woolf's Novels and the Literary Past*. Edinburgh UP, 2006.
- Esty, Jed. *Unseasonable Youth: Modernism, Colonialism, and the Fiction of Development*. Oxford UP, 2012.
- Froula, Christine. *Virginia Woolf and the Bloomsbury Avant-garde*. Columbia UP, 2005.
- Garrity, Jane. *Step-daughters of England: British Women Modernists and the National Imaginary*. Manchester UP, 2003.

- Jameson, Fredric. "Modernism and Imperialism."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U of Minnesota P, 1990, pp. 43-68.
- Marcus, Jane. *Hearts of Darkness: White Women Write Race*. Rutgers UP, 2004.
- Martini, Fritz. "Bildungsroman: Term and Theory." *Reflection and Action: Essays on the Bildungsroman*. U of South Carolina P, 1991, pp. 1-25.
- McIntire, Gabrielle. "Heteroglossia, Monologism, and Fascism: Bernard Reads *The Waves*." *Narrative* vol. 13, no. 1, 2005, pp. 29-45.
- Moretti, Franco.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Verso, 2000.
- Purifoy, Christie. "Melancholic Patriotism and *The Wav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vol. 56, no. 1, 2010, pp. 25-46.
- Ryan, Derek. *Virginia Woolf and the Materiality of Theory: Sex, Animal, Life*. Edinburgh UP, 2013.
-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Random House, 1993.
- Sammons, Jeffrey L. "The Bildungsroman for Nonspecialists: An Attempt at a Clarification." *Reflection and Action: Essays on the Bildungsroman*. U of South Carolina P, 1991, pp. 26-45.
- Son, Youngjoo. "'But who makes it? Who thinks it?': Rethinking Form in Virginia Woolf's *The Waves*." *James Joyce Journal*, vol. 20, no. 1, 2014, pp. 79-106.
- Woolf, Virginia, *A Writer's Diary: Being Extracts from the Diary of Virginia Woolf*. Edited by Leonard Woolf, Hogarth, 1953.
- \_\_\_\_\_. *The Waves*. 1st ed., Harcourt, 1978.

**Abstract**“Natural” Coming-of-Age: *The Waves* and the Bildungsroman

Ilsu Sohn

This essay aims to analyze Virginia Woolf's *The Waves* as a modernist rewriting of the Bildungsroman. The classical Bildungsroman purportedly features the ideal reconciliation between the modern autonomous individual and organic national culture, and *The Waves* revisits this idealistic narrative of coming-of-age. Each character tells his or her narrative of coming-of-age, and their soliloquies illustrate diversified attempts to overcome the isolated individual's anger and frustration in modern society and to reconcile them to social whole, thereby trying to come of age successfully. In particular, the British imperial culture that Percival represents operates as a given, discursive material for the other characters' own narrative of coming-of-age; however, the culture fails to allow any character's coming-of-age to complete in a traditional sense. The failure assumes a different style in each case, and each character, especially Bernard toward the end, constantly oscillates between moments of unity and disintegration in a manner that symbolizes the movement of waves. The depiction of nature highlights this oscillation and the perpetual delay of coming-of-age. Nature reveals, and embodies, this ultimate contingency and unpredictability rather than any particular entity or concept in this novel. The novel does not celebrate the potentially destructive, boundary-dissolving power of nature but simultaneously depicts the urgency to reestablish meanings of one's coming-of-age and of historical progress. *The Waves* suggests that, during the time of social disintegration, a new narrative of coming-of-age needs to arise by integrating the fundamental indeterminacy of nature as resistant against any human discourse that attempts to finalize the purpose of one's coming of age and social unity.

■ Key words : Virginia Woolf, *The Waves*, the Bildungsroman, modernism,  
nature, history

(버지니아 울프, 『파도』, 성장소설, 모더니즘, 자연, 역사)

논문접수: 2017년 2월 7일

논문심사: 2017년 6월 7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7일